

강자와 약자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게 대한 충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는다면 하는 것을 나는 조금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미리 무엇이고 심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 내시고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아폴로와 나의 경우를 들어서 이 모든 이치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아 한계를 넘지 말라는 교훈을 배우게 하고 또 여러분이 남을 깔보고 주님께 자기 편을 추켜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양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을 해볼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맨끝에 세워 놓으셔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못인간들의 구경거리

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멸시만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발이 부르르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1~13)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파울 토니어(Paul Tornier)가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의 서두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식탁에 자리를 잡고 보니 그 식당 안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세 살쯤 되는 아기를 꾸짖고 있었고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땅에 흩어져 있는 종이조각을 가리키며, 빨리 주우라고 야단을 치고 아이는 그 꾸중에 울면서도 종이를 주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조그만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자인 어머니가 약자인 자기 아이를 보고 방바닥에 널려 놓은 종이를 주우라고 엄명을 내렸지만 아이는 그 종이를 줍지 않고 울음을 터뜨려 항거하는 중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아이는 결국 자기가 큰 소리로 울수록, 어머니는 식당 안의 손님들 눈치를 보면서 당혹해 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그 종이를 줍고,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을 잘못 교육시켜서 순종시키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난처해진 것이었습니다. 더우기 어린 아이 앞에서 어른이 화를 내면 낼수록 어머니 자신이 부끄러운 입

장에 놓이게 되는 것임을 그 어머니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 난처해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저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운 느낌은 더욱 강해졌고 결국에는 자신
이 그 종이를 찢고 만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전쟁에서 종이
를 주운 것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약자인 아이가 마침내 이기
고 만 것이었습니다.

파울 토니어는 이 광경을 지켜본 후 강자와 약자에 대한 분
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
람과의 대결이 불가피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한 사람이 물
리적인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짓눌러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강자도 경우에 따라 약해질 수 있으며, 약자도 강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강압적인 사람이 가정에 들어와서는 온순하기 짝
이 없는 형태의 사람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언제나 온유하
고 친절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강하고
완고한 입장을 취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기
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관리인이며 이들에게 가장 절
실히 요구되는 것은 충성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충실한 관
리인으로서의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는다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
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나는 조금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
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양심
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죄
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고린도전서 4:3~4:4)

지난 해에 몇 분 목사님들과 6개월 동안 옥중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들의 실정을 꼭 그대로 표현해준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법정에서 서서 조금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기에 내게 전혀 죄가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법대로 한다면 나는 무죄이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내게 무언가 잘못이 있어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착잡한 심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착잡한 심정, 옥중에서 곤욕을 당하는 심정을 아주 담담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웅심에 사로잡히거나 남을 원망하는 일 없이, 이러한 옥중생활을 자기와 아폴로와의 관계를 들어서 이치로써 담당하고 겸손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이치가 어떠했었습니까?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오늘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민주, 인권이라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선교적인 싸움을 전개시켰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선교적인 노력에 있어서 우리는 가끔 본의 아니게도 우리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냉소와 시기 증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경험을 하지는 않았던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는 양 자만하는 일은 없었던가?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이 남을 깔보고 주체 넘게 자기 편을 추켜올리는 일을 하지는 않았던가? 누가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보아주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랑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벌써 배가 불렀다. 벌써 부자가 되었다. 벌써 왕이 되었다……등등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하지는 않는가?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보요 약자라고 생각했던가? 아니, 무의식 중에 우리는 강한 교회의 세력을 믿고 자신을 가졌으며 강자라고 생각했으며 바보가 아니라 똑똑하고 빈틈이 없는 지도자라고 자부하거나 않았던가? 실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행동에 참가하지 않는 동료들을 비겁하다고 깔보는 반면에, 행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동자들을 냉소적으로 빈정대는 일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았던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아폴로당, 계바당, 그리스도당이 지난 몇 해 동안 우리의 일체감을 여지없이 붕괴시키지 않았던가?

당시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의 뒤를 쫓는 계바당, 알렉산드리아에서 선교사로 고린도에 왔던 아폴로당의 사람들이 유창한 언어와 지혜로운 교훈으로써 대중을 매혹시키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신조나 신앙, 또는 노선에 따라서 서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 중심의 친근감에서 서로 갈라지고 남을 비방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랄하게 저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함께 하다가 보면 인간적인 관계 형성은 문제 중심으로 되지를 않고 친분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집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니까 그가 하는 일이나 말은 다 좋고 또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마땅치 않다고 단정을 내리는 수가 많습니다. 교회의 연합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중대한 논제로 의견을 서로 나눌 때도 이런 경향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보아도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소위 비신학적

인 요소가 교회 분열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교회관계에 있어 분열의 중요한 원인이 어떤 독선이나 아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강자가 되어 보겠다는, 인간으로서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겠다는 심정이 깔려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또한 내가 속한 집단이 명분으로나 실리로 따져서 남보다 우세한 입장에 서야겠다는 다음이 지배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도 나는 바울에 속하고, 나는 아폴로당이요, 나는 게바당이요, 나는 그리스도당이요 할 때 바로 이러한 비신학적인 심정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배가 부른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이미 왕이 다 된 사람들이라고 좀 빈정대는 투로 말하고 그대들은 강자들이요 나는 약자로다 하고 비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강자와 약자라는 말을 쓰면서 그의 가치관을 넉넉히 비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엄청난 가치관의 전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강자이지, 허세와 허영심으로 인간의 야욕을, 갈망을 충족시키는 데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강한 것 같으면서 사실은 대단히 약한 것이다」라는 뜻을 빚대어 말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써 약자를 함부로 누르고, 모든 것을 자기 앞에 굴복시키자는 태도는 얼핏 보기에 대단히 강한 것 같지

마는 그것은 대단히 약한 것입니다. 식당에서 아이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던 어머니가 결국 어린아이에게 지고 만 것처럼, 인간은 결코 물리적인 힘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적(美的)인 존재요,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힘 앞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신적인 것, 도의적인 힘과 정의의 힘은 물리적인 힘 아래에서는 오래 짓눌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여러분은 심오한 진리를 맡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 힘을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서 선물을 받을 때는 이미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일부분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 선물을 거절한다면, 그것을 준 사람과 그의 인격을 거절하는 뜻이 됩니다.

일단 선물을 받고 나면 그 선물을 유용하게 쓰는 방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선물이 장식품이든 실용적인 것이든, 구색을 갖추어서 그 선물을 빛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청지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심이 없는 청지기는 이미 그 받은 은사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오용하고 만 것입니다. 언론인, 의사, 상인, 목사 등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은사를 받았읍니다. 직업을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이조시대의 역사에는 수많은 충신 간신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해군은 영특한 임금으로서 선정을 베풀고 백성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간신들의 계교에 걸려들어서 만년에는 크나큰 실정을 하게 되었고, 요사스런 궁녀 강희, 간신 이 이철의 농간에 빠져 대

비마마를 폐모시키는 패역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조 백관들이 이 이철의 권세에 눌려서 임금에게 제대로 간해 올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중 단 한 사람 백사 이 항복만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로부터 모후를 폐모시키는 것은 춘추대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임금에게 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간신들은 입을 모아 이 항복의 유배를 간청했고 여러 차례 이러한 간청을 거절해 오던 광해군은 간신들에 둘러싸여 마침내 이 항복을 유배시키기로 했습니다. 노년에 중풍까지 걸린 이 항복은 눈물을 흘리며 한양을 떠나 금화, 회양, 은계를 거쳐 철령에 올라가는데 철령은 새도 날기 어려운 고개였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망망히 떠 있는데 한가닥 또 한가닥 구름자락은 산허리에 휘감겨 날지도 못하고 만접이나 되는 산봉우리는 중중첩첩으로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관 앞에서 이 항복은 문득 청을 높여 시를 읊었습니다.

철령 높은 재에 자고 가는 저 구름아
 고신원투를 비 삼아 실어다가
 임 계신 구중 궁궐에 뿌려본들 어떠리

자기를 버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유배의 길에서 임금에게 보내는 간절한 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셋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 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저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백사 이 항복의 시조와 이 기도는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또 하느님의 진리를 지키는 청지기에게는 이러한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은사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

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사를 자각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위선일 것입니다.